

12. 왜 우리는 가짜 환경 신을 숭배하게 되었나

북극곰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 북극곰에 대한 정보(개체수가 감소했다)는 오류투성이다. 이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학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기후 정치가 과학을 위협한다

- 기후변화정부간협약체 보고서의 과학적 기반 자체는 대체로 건전하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과 언론 보도자료, 보고서 저자들의 성명과 언론 인터뷰 등이 문제다. 그것들은 이념적 동기를 가지고 과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요한 맥락을 함부로 생략한다.

누가 로저 펠키 주니어를 모함했나?

- 미국진보센터는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오바마 정권의 녹색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관장했을 때,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법제화하려고 시도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와 천연가스 업계의 기부금을 받고 있었다.
- 펠키에게 가해진 부당한 박해가 돈과 정치 권력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그야말로 ‘마녀사냥’을 연상케 했다. 1950년대에 조지프 매카시 상원 의원이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벌한 광기 어린 사건처럼 말이다. 펠키를 희생양으로 몰아간 그 행위는 다분히 종교적이었다. 종말론적 환경주의에는 바로 그런 종교적 성격이 짙게 깔려 있다.

사이버네틱스(인공두뇌학)와 생태학, 그리고 새로운 가짜 신의 탄생

기후 종말론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

환경휴머니즘의 길

우리에게는 ‘그린 뉴클리어 딜’이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자연과 번영 이루기 : 우리의 불멸 프로젝트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명료한 이유

- 우리가 마운틴고릴라를, 노란눈펭귄을, 바다거북을 구하려는 건 인류 문명이 그 일에 달려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더 단순한 이유로 동물들을 살리고자 한다. 바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